

# 운전중 DMB시청, 단속 할거야 말거야

## 광주·전남 경찰, 시행 4개월째 적발 전무

### 실효성 논란 속 사실상 포기 지적도

안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

경찰이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는 '무개념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사실상 움직이는 차 안에서 DMB를 보는 운전자를 적발할 '모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 2월 시행된 관련 법은 벌써 '유명무실화'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적발된 차량은 전무하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나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벌점·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벌금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49조 1항)은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었다.

경찰은 애초 2월 말까지 달린 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을 벌인 뒤 3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5월 이후로 단속 시기를 미룬 바 있다. 그러나 5월 이후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고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다.

별도의 단속장비도 없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눈으로 움직이는 차량 운전자의 'DMB' 시청 여부를 가려내 단속하기가란 여간 쉽지 않다는 게 담당 경찰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남지방경찰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21개 경찰서

에서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사실상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운전자들도 경찰의 계도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알고 있는 탓에 택시·승용차 운전자의 운전 중 DMB 시청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에서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관련법 개정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운전 중 DMB 시청 금지'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 문화 캠페인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49재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재 추도식이 열렸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지법, 세월호 재판 앞두고 피해자 사전 심리교육

광주지법은 5일 오후 3시 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세월호 피해자 심리상태 이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고 있을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심리영 안산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심리안정팀장이 강사로 나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심리상태와 행동에 관한 이해 ▲피해자들을 위해 재판 과정에서 배려할 사항 ▲재판에 참석하는 직원들이 주의할

사항 ▲법원의 피해자 지원사항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에는 담당 재판부 법관을 제외한 재판 지원 업무를 맡은 법관,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공판 검사, 변호인도 참석하게 된다. 한편,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은 10일 광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대형인명피해 범죄 징역 100년까지 선고 가능

### 법무부, 관련 특례법 입법예고

세월호 참사에서처럼 사망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만들어진다.

이는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

(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형법 등에 따르면 한 번의 범죄 행위로 범 조항을 여러 개 어긴 경합범은 규정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법정형에 그 형의 2분의 1 형량까지 더 없이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경우 최대 징역 50년까지밖에 선고할 수 없다.

이같은 가중 조항에 따라 인명피해범죄에는 기존 사형·무기징역 외에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최대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연향뉴스

##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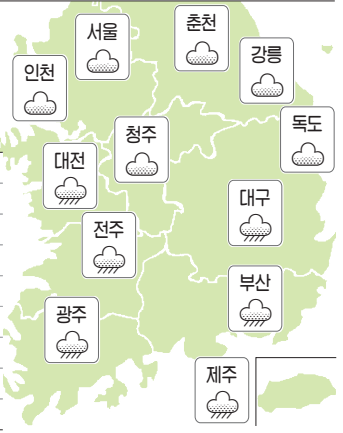
해돋이 05:19    해질 10:55  
해짐 19:43    맑음 00:04

선거일 대체로 '흐림'

새벽까지 비온 뒤 그칠 전망이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8/26	보성	비	18/23
목포	비	18/25	순천	비	18/25
여수	비	18/21	영광	비	18/25
나주	비	18/26	진도	비	18/24
완도	비	18/23	전주	비	18/27
구례	비	18/26	군산	비	17/26
강진	비	18/24	남원	비	17/25
해남	비	19/24	흑산도	비	16/21
장성	비	18/25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해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남해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남해	서해	북동~동	1.0~2.0	북동~동	0.5~1.5
남해	서해	북동~동	2.0~3.0	북동~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63
운동	10
빨래	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6:07	11:32
		18:12	23:26
여수		00:42	06:50
		12:51	18:58

◇주간 날씨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11(수)
18/26	17/27	18/28	18/28	19/28	18/28	18/28

## 대낮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아 4명 잇달아 성추행

### 영암지역서 지난 4월 발생 검찰, 60대 선원 구속 기소 학교·교육청선 모르쇠 일관

대낮에 영암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 살도 안된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안전한 대처로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영암경찰과 영암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초등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원 박모(64·가칭) 씨를 지난달 13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10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A(9) 양을 흥기로 위협한 뒤 50m 가량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중 요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앞서 정오경에도 같은 운동장에서 B(7) 양 등 7세 여아 2명에게 다가 "자전거를 태워줄래"고 구석진 곳으로 유인, 흥기로 위협해 옷을 벗도록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박 씨는 지난 4월19일에도 또 다른 여아를 학교 운동장에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자신이 승선하는 화물선이 목포항에 정박해 있는 틈을 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는 지난 2001년에도 부산에서 여자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학교에서 잇따라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해 학부모들과 지역 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학부모들은 소문을 듣고 학교에 전화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해 안심했는데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비난했다. 영암교육지원청도 "애기해줄 수 없다"고 감추기에 급급했다. 학부모들은 CCTV 설치 등으로 '365일 안심학교'를 운영한다고 큰소리치더니 정작 사건이 터지자 사대 파악도 못하고 쉬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 학부모는 "처음 사건이 터졌을 때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2차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면서 "요즘 하도 불안해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여자의 밸런스 루틴으로 잡으세요!

비싼 일상속 간편한 밸런스  
사람 따뜻하게 하고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바다위 섬에서 자란 신안꾸지뽕 차

100티백 섬 꾸지뽕차 출시!!

- 신안군 행정 섬에서 해풍을 받고 자란 신안꾸지뽕 100%
- 몸의 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는 루틴
- 신안만의 특수공법으로 꾸지뽕잎을 발효시켜 뒤어서 만든 꾸지뽕차

神木에 氣를 담은

# 꾸지뽕

유기농 재배작물!  
최고의 경제수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꾸지뽕나무

꾸지뽕 관련 제품 대리점 하실 분을 찾습니다.  
재배방법 용이, 귀농 귀촌 농가 추천 작목, 재배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신안꾸지뽕농업법인(주) | 1899-3688 | www.bbong88.co.kr

직장인들의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  
거기에 기름진 식단과 운동부족까지  
이제 신안꾸지뽕차로 몸의 균형을 잡으세요

꾸지뽕 성분중 가바, 루틴 성분이  
녹차의 46배, 68배

- 가바(GABA) 성분이란?**  
포유류의 뇌속에 존재하는 특이한 아미노산으로 인체에서 가려워, 사고력 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골다공증 제거와 당뇨병 개선, 고지혈증,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 루틴(Rutin) 성분이란?**  
임종의 플라보노이드 유도체로서 모세혈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동맥경화, 노출혈 같은 순환기 계통을 강화시키고 노화방지, 당뇨, 비만, 이드피 피부염, 염종치(레안성질환) 등 신진대사를 조절해주어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전남신안자연연구소  
재래연구

신안군수 생산보증

신라남도  
신안자연연구소

(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협업

신안군수 생산보증

JBF  
(사)전남생물산업진흥원

1004  
최신 4차 산업

Government of Jeonnam